

초코가 된 수미

글 길지연, 박은정, 그림 김재이*

나는 수미라고 해, 우리 가족은 모두 4명이란다.

나랑, 엄마, 아빠 그리고 ...말썽쟁이 동생 강아지 초코야.



* 재능 기부로 조악한 글을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신 길지연 동화작가와 김재이 삽화작가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나는 초코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같이 놀고 싶은데 초코는
나랑 노는 게 싫은 가 봐,
안아주려고 하면 바둥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가.
작고 귀여운 초코 귀가 예뻐서 잡아당기면 “캥캥” 비명을 질러.
눈물도 찼끔찼끔 흘려.
살랑살랑 흔드는 꼬리가 신기해서 잡아당기면 캥캥 엉살을 피워.
초코가 도망가도 나는 화내지 않고 쫓아가서 더 놀아줘.
귀도 잡아당기고 꼬리도 잡아당기며 놀아,
나는 동생이랑 잘 놀아주는 언니니까.



어제는 아이스크림도 나누어 먹었어.
초코가 좋아하는 초코 아이스크림이었어!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지?
초코가 갑자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몸에서 열이 막 나.
엄마랑 나는 서둘러 동물 병원으로 달렸어,
동물 병원 선생님은 머리가 찰랑거리는 예쁜 언니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이리저리 초코를 진료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음, 초코가 설사도 하는 걸 보니 음식을 잘 못 먹은 것 같아요.
강아지와 사람은 다르거든요. 혹시 땅콩이나 양파, 딱딱한 닭 뼈
를 주었나요?”

“아니요.”

엄마와 나는 똑같이 고개를 저었어.

“그럼 혹시 아이스크림이나……초콜릿이나.”

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어.

“어제 초코랑 아이스크림 나누어 먹었어요.”

“그게 탈이 난 거예요. 강아지는 사람 먹는 음식 함부로 먹이면 안
됩니다. 고구마나 사과나 당근 정도는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고개를 가우뚱하셨어.

“그런데 …초코가 예전 같지 않고 깜짝깜짝 놀라는 걸 보니 매를 맞은적 있나요? 손만 대면 화들짝 놀라고 부들부들 떠네요.”

“절대 때린 적 없어요. 예쁜 동생 초코를 때리는 건 말도 안 돼요.”

“음,” 하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씀하셨어.

“강아지는 자전거만 봐도 무서워서 떨어요. 자기보다 몇 배 몸이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책상은 높은 산처럼 보이지요. 강아지를 책상 위에서 밀거나 떨어뜨리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예쁘다고 귀나

꼬리를 잡아당기면 많이 아파해요.”

엄마가 나를 힐끔 쳐다봤을 때 난 가슴이 철렁했어.

초코 꼬리를 잡아당기면 엄마가 늘 “안 돼! 아파” 그러셨어.

그래서 나는 엄마 없을 때만 그랬거든,

“당분간은 초코가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아플 때는 만지지 말고 조용히 쉬게 해주세요.”

나는 초코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

“잘 들었지. 오늘은 초코 조용히 쉬게 해 줘야 해.”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 내 방을 나가셨어.

초코는 여전히 구석에서 끁끁 소리를 내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어.

“이리 와! 초코야!”

나는 초코를 안고 내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

나도 모르게 자꾸 초코 꼬리를 만지작거리다 잠이 들었어.



쿨쿨 잠을 자는데 갑자기 으슬으슬 추었어.

“아이 추워.”

너무 추워서 눈을 뜨니 “어, 여기가 어디지?”

내가 길 위에 었드려 있었어.

벌떡 일어나 보니, 어라, 내 발이 네 개야

“엄마, 엄마, 아빠~~.”

그런데 내 목에서는 “깡깡” 소리만 났어.

아빠랑 엄마를 소리쳐 불렀는데 “깡깡” 소리만 나.

집으로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

색깔도 안 보이고 그저 모든 게 회색으로만 보여.

안개가 쌓인 듯 지나가는 자동차는 산처럼 높아 보이고 사람은 모두
거인들 같아.

간판이 너무 높이 달려있어서 안 보여.

게다가 글자를 읽을 수도 없어.

무작정 집이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달렸어.

바로 그때 ‘끼익“ 아주 큰 자전거가 내 옆으로 휩 스쳤어.

“이거 누구네 개새끼야?”

어떤 할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전거 위, 너무 높은 곳에 앉아 있어 얼굴도 보
이지 않았어.

목소리는 천둥소리만큼 두렵게 들려왔어.

나는 몸을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었어.



눈에 보이는 건 희미한 길바닥과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 정도야.
계속 킁킁대며 우리 집 냄새를 찾을 수밖에 없어.
“엄마, 엄마, 춥고 배고파요.”
그러나 내 목에서는 “멍멍” 소리만 났어.
바로 그 때, 우리 반 현아 목소리가 들렸어.
“엄마, 여기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어머, 집을 잃었나 보다.”
“엄마, 배가 고파 보여요.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가족을 찾아봐요.”
“저런, 일단 뭘 먹여야 할 것 같구나.”
현아가 나를 덥석 안았어.
흔들흔들 막 걸어가는 현아 가슴에 있으니 내 몸이 땅으로 떨어질까

조마조마 심장이 두근두근했어.

땅은 저 아래 한 참 아래라 이대로 현아가 손을 떼면 나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이...아, 상상도 하기 싫어.

나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현아 집으로 왔어.



“현아야! 나야 나, 네 친구 수미라고.”

그러나 내 목소리는 캥캥거리기만 했어.

“조그만 게 짚기도 하네. 아유 귀여워.”

현아가 내 귀를 막 잡아당겼어.

“깹깹.”

얼마나 아픈지 귀가 빠지는 줄 알았어.

“호호, 조그만 게 사납기도 해라, 어머, 이 꼬랑지 좀 봐, 보들보들 예쁘다.”

현아가 이번에는 꼬리를 잡아당겼어.

“으르렁”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드러냈어.

“아이 재미있다. 화도 낼 줄 아네. 귀여워.”

현아는 나한테 비스킷이랑 초콜릿을 줬어.

“현아야, 개는 과자나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엄마가 가서 사료 사올 게. 과자 주지 마.”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과자를 아삭아삭 깨물어 먹고 초콜릿도 날름날름 핥아 먹었어.

“정말 잘 먹네, 너도 나처럼 초콜릿 좋아하는구나. 다 먹어.”

현아는 초콜릿을 세 개나 까서 또 줬어,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어,

그런데...조금 있자 배가 살살 아프고 구역질이 났어.

몸에서 열이 나고 데굴데굴 구를 정도로 배가 아파 왔어.

나는 썩 썩 먹은 걸 토하며 그대로 폭 고꾸라졌어



“엄마, 엄마 강아지가 이상해요.”

“어머 기절한 거니, 어서 동물 병원으로 가야겠다.”

“죽는 건가요?”

“강아지 귀가 빠졌대요.”

“어머 꼬랑지도 빠졌네, 수미가 잡아당겨서 빠졌대.”

희미한 소리가 뽁뽁 맴돌았어!

내가 이대로 죽는 건가?

두려움에 엉엉 울음이 터졌어.

그때 누군가 내 볼을 날름날름 핥았어.

따뜻하고 사랑스런 느낌이었어!

가만히 눈을 뜨니 “초코!!!”

초코가 내 볼을 핥고 있었어!

벌떡 일어나 보니 내 방이야.

“휴우!”

안도의 숨이 절로 나왔어.

내 눈, 내 코, 내 입, 내 두 다리 모두 그대로였어.

초코가 가만히 다가와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어.

흠쩍흠쩍 콧물이 나더니 눈물이 툭 떨어졌어.

“초코 미안해, 맨날 꼬리만 잡아당기고 괴롭히고.”

“배 아플 줄 모르고 아이스크림, 초콜릿도 주고. . .”

“자전거도 산처럼 높아 보이고 얼마나 무서웠니?”

“그것도 모르고... 미안해” 엉엉 울음이 터졌어.

초코가 “언니야, 괜찮아” 하는 듯 다시 내 볼을 날름날름 핥았어.

나는 가만히 초코를 안았어.

“정말 미안해”

작은 소리로 말했어.

강아지에게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알았거든.

초코가 무서워하지 않았어.



“사랑해!”

작은 소리로 또 말했어.

초코가 가만히 엎드리더니 편안하게 하품을 했어.

나는 다시 한 번 작은 말로 속삭였어.

“초코야, 정말, 정말 미안해, 언니가 몰랐어. 이제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너는 너무나 작은데 이 세상은 너무 크고 무섭지. 내가 지켜줄 게!”

“내 동생 초코!”